

부모의 양육신념 및 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3-7세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A Study on Parenting Beliefs,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 Rearing Stress

송승민 · 송진숙*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Song, Seung-Min · Song, JinSuk

The univ. of Suwon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 PaiChai Univ.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bstract

The relationships of parenting beliefs,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 rearing stress were examined in a sample 400 parents who have 3-7 aged children. Parents completed three kinds of questionnaires such as parenting beliefs scale, parental satisfaction scale, and child rearing stress scale

Data analysis was by mean, percentile, t-test, oneway-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renting beliefs and child rearing stres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 rearing stress. Third, conflict of parental role in parental satisfaction and problem solving in parent beliefs was the most predicting variables in child rearing stress.

Key Words : parenting beliefs, parental satisfaction, child rearing stres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핵가족화와 함께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해 자녀 양육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즉 급격한 경제적 변화와 취업 여성의 급증, 핵가족화로 가족 지지 체제가 축소됨에 따라 다른 가족원의 도움없이 부부 둘만이 자녀양육을 수행해야 함으로서 자녀양육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 또한 높아짐에 따라 부모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자녀양육의 문제는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차원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손영숙, 1985; 박성연, 1992; 박영애, 정옥분, 1996).

이러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점차 복잡해지고 자녀양육을 통한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와 기술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외형적으로는 핵가족의 형태를 보이나 실제적인 가족가치는 아직 까지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여 자녀양육은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유영주, 1987). 더욱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성장과 발달을 통하여 즐거움과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개념에는 친숙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김기현,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제약을 받게 됨으로서 부모 개인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개인적 성취나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현대사회의 부모됨에 많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영(1986)의 연구에서 전문직 취업모들

* Corresponding author: Song, JinSuk
Tel: 042) 520-5422, Fax: 042) 520-5421
E-mail: penn@pcu.ac.kr

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로 자녀양육으로 인식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양육이라는 과제는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를 뛰어 넘어 사회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이슈라는 점을 부각시킨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사회생활에서 복잡한 업무와 과로에 쉽게 노출되는데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중되어 자녀양육에 할애할 관심과 노력이 약화되기 쉽고,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가 무너져 자녀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도 자녀양육에 따른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역할 만족도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보편적인 일상생활 만족까지도 충족시켜 주는 중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Guidubaldi & Cleminshaw, 1989). 많은 사람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된 명확한 인식이나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새로운 역할을 맞이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의 느낌을 부모역할이라 규정하면서 현온강(1994)은 부모역할 개념에 대해 다차원적이며 여러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압박감도 함께 수반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즉 다시 말해 부모역할이란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순간부터 부모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수행하는 특징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지신과 도현심(1997)은 부모역할에 대해 부모가 만족하는 정도를 부모역할 만족도라 하였고, Bowen(1982)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의 주관적 영역을 부모역할 만족도라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국내의 연구에서 원정선(1990)은 부모됨의 어려움과 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보다 강조된다는 점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남편의 가사 참여도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거론되었다. 특히 확대가족과 달리 핵가족의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어머니에게 물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박삼수(2004)와 허순금(2006)은 남편이 가사일을 분담하고 아내의 직장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협조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지가 어머니의 역할

갈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 이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어머니만의 책임이 아니라 가사분담을 함께 하여 남편이 가사 일에 협조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 참여율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부모의 역할만족도는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 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관련 기초변인으로 성별, 연령, 출생순위, 자녀수(김향은, 정옥분, 1999; 양미경, 1996)를, 부모관련 기초변인으로 성별, 소득,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남편의 가사참여도(강희경, 1994; Guidubaldi, 1989; Goetting, 1986; Steffensmeir, 1982)를 중요한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김기현(2000)은 그 동안 행해진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써가 아니라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외국 문헌들을 여가 없이 인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지연(2003)은 관련연구의 경향이 아동의 질병이나 장애 및 경제적 곤란과 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나 일상생활사건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상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양적 확대를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기존의 연구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어느 한 쪽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모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할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행동 및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관심을 가지며 단순히 양육행동을 연구하기 보다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Miller, 1988). 이에 학자들은 부모 주변의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부모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직하고 결정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igel, 1985). 특히 연구자들이 주목을 받는 영역중의 하나는 신념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행동이라는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개념의 틀을 설정하는 경향이다.

Kovchanska와 그의 동료들(1989)에 의하면 신념이란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근원으로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 신뢰의 정신적 구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념에는 발달에 대한 지식 또는 부모의 역할, 자녀교육의 목표 및 중시하는 가치, 그리고 자녀의 학

교생활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결국 부모의 양육신념에 따라 부모의 행동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경숙(1992)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는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자녀에게 동기 부여자와 행동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발달하는 방향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신념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고 복잡한 구조 속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신념이 클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며, 자녀의 역할 수행의 내용에 따라 부모의 역할만족도는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위기가 아니라 보상과 만족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결과의 불일치와 연구설계의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나타내는 연구들이 많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Miller, 1998).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형적인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에 초점이 모아지며, Goodnow(1988)와 Sigel(1985)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부모의 내면적 심리구조를 지적하였다. 즉 부모와 자녀간의 표면적인 상호작용 이외에 부모의 행동을 낳게 하는 인지적이고 정신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가 지니고 있는 양육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양육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은 만족감을 증폭시키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심리적·경제적 부담 및 신체적 피로감을 증대시키고 부모의 개인생활과 여가활용 기회를 제약하여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박성연, 전춘애, 1998; Belsky, 1984). 이처럼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면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서 비롯되는데 아이의 성가심이나 짜증 등이 반복되면서 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본다. 아울러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특성, 유아의 특성, 그리고 생활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초조해지며 부정적인 생각이 증폭되어 스

트레스를 벗어나고자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성적인 행동보다 감정적인 행동의 표출로 자녀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양육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다고 느끼거나 자녀의 양육 때문에 고생한다고 느끼는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영미, 1995;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Abidin, 1990; Crnic & Acevedo, 1995; Crnic & Greenberg, 1990; Crnic & Booth, 1991).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올바른 양육이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의 행복한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녀교육의 바람직한 패러다임 정립 차원에서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과 Abidin(1990a)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생활사건 뿐 아니라 이혼, 죽음,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생활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지만 특별한 생활사건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생활 속에서 자녀 양육기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사건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현대사회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통과의례로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흐름에 기초하여 부모의 양육신념 및 부모역할 만족도,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들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양육 스트레스의 관련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의 양육신념, 부모역할 만족도, 그리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세 변인들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후무하지만, 이미 언급하였듯이 두 변인들간의 관계들을 통해서 세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이 예측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신념과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변인이 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신념 및 역할만족도 그리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신념, 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신념 및 역할만족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설명력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1) 부모의 양육신념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김경혜(1993)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 중에서 본 연구자가 관심을 둔 자녀 양육신념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은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능력, 순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신념에 대한 각각의 신뢰도는 .75, .65, .56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각각 .70, .48, .54로 나타났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3세에서 7세 자녀를 둔 부모 20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2) 부모역할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역할 만족도는 조복희와 현은강(1994)이 개발한 것으로 하위영역은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배우자지지, 부모역할 갈등, 자녀의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계수는 .83, .81, .91, .83으로 나타났다.

3) 양육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로 배인숙(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 하위영역은 유능성, 애착, 억압성, 침체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하위영역	빈도	백분율(%)
아버지	연령	25~35세	70	35.9
		36~39세	71	36.4
		40~60세	54	27.7
	학력	고졸이하	74	38.5
		대졸	103	53.7
		대학원졸	15	7.8
어머니	연령	20~33세	80	41.2
		34~36세	50	25.8
		37~60세	64	33.0
	학력	고졸이하	94	49.0
		대졸	94	49.0
		대학원졸	4	2.0
성별	남아	90	45.0	
	여아	110	55.0	
아동	연령	3세	10	5.0
		4세	27	13.5
		5세	48	24.0
		6세	51	25.5
		7세	64	32.0
		가족수입	200만원 이하	67
201~300만원	72		39.6	
301만원 이상	43		23.6	

성, 배우자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82, .80, .81, .83, .81, .84, .77로 신뢰할 만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협조를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10곳과 그 외 3세에서 7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뒤 각 원의 원장을 통하여 27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개별적으로 부모님을 통해 59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부모 각각의 생각을 개인별로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 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여 2007년 3월 29일부터 5월 7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총 330부 중 21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64.55%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00부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부모에 따른 양육신념, 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신념과 역할만족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양육신념 및 역할만족도와 양육 스트레스간의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 있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어머니/아버지)에 따른 양육신념, 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

3-7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양육신념, 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부모간의 인식의 차이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부모의 역할만족도의 하위영역인 배우자 지지($t=4.22, p<.001$)와 부모역할 갈등($t=-4.46, p<.001$)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간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유능

<표 2> 부모에 따른 양육신념, 역할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변인	하위영역	어머니		아버지		t
		M	SD	M	SD	
양육 신념	문제해결 능력	41.67	7.85	41.64	8.77	-.03
	창의적 능력	14.69	3.03	14.59	3.48	-.29
	순응	17.03	3.67	17.37	4.59	.81
	전체	73.39	13.66	73.61	15.67	.15
역할 만족도	일반적 만족도	36.06	7.59	35.98	7.91	-.11
	부모-자녀 관계	27.01	5.43	26.64	5.80	-.66
	배우자 지지	25.76	6.68	28.69	7.16	4.22***
	부모역할 갈등	23.31	6.50	20.46	6.20	-4.46***
	자녀의 지지	16.28	3.93	15.86	4.18	-1.03
	전체	128.44	23.11	127.59	24.97	-.35
양육 스트 레스	유능성	6.71	1.93	7.32	1.97	3.11**
	애착	7.79	1.80	7.53	1.97	-1.34
	억압성	2.83	.99	2.97	.96	1.42
	침체성	3.48	.96	3.60	.99	1.22
	배우자 관계	7.43	1.88	7.37	2.08	-.32
	사회적 고립	6.71	1.81	7.24	1.91	2.32*
	건강	7.07	1.88	7.65	1.90	3.06**
	전체	41.14	8.75	43.70	9.96	1.66

* $p<.05$ ** $p<.01$ *** $p<.001$

성($t=3.11, p<.01$), 사회적 고립($t=2.32, p<.05$), 건강($t=3.06, p<.01$)에서 부모간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3-7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내에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배우자 지지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아버지들이 어머니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갈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해 많은 부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양육신념에 있어서는 어머니나 아버지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육신념 및 역할만족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신념과 역할만족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신념 중 문제해결 능력은 양육스트레스의 유능성($F=8.59, p<.001$), 애착($F=18.22, p<.001$), 침체성($F=3.32, p<.05$), 배우자 관계($F=7.12, p<.01$), 사회적 고립($F=7.76, p<.001$), 건강($F=3.41, p<.05$), 전체($F=12.5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창의적 능력에서는 유능성($F=9.03, p<.001$), 애착($F=10.70, p<.001$), 배우자 관계($F=3.26, p<.05$), 사회적 고립($F=4.35, p<.05$), 전체($F=7.0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순응에서는 유능성($F=4.91, p<.01$), 침체성($F=4.27, p<.05$), 사회적 고립($F=5.46, p<.01$), 전체($F=4.9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신념 전체에서는 유능성($F=9.06, p<.001$), 애착($F=10.84, p<.001$), 침체성($F=3.65, p<.05$), 배우자 관계($F=5.56, p<.01$), 사회적 고립($F=9.78, p<.001$), 건강($F=11.18, p<.001$), 전체($F=34.1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역할 만족도의 일반적 만족도에서 유능성($F=15.33, p<.001$), 애착($F=16.98, p<.001$), 배우자 관계($F=9.85, p<.001$), 사회적 고립($F=5.97, p<.01$), 건강($F=4.76, p<.01$), 전체($F=14.7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유능성($F=27.10, p<.001$), 애착($F=20.72, p<.001$), 침체성($F=3.24, p<.05$), 배우자 관계($F=4.36, p<.05$), 사회적 고립($F=9.73, p<.001$), 전체($F=17.6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 지지에서 유능성($F=25.33, p<.001$), 애착($F=9.85, p<.001$), 배우자 관계($F=7.71, p<.01$), 사회적 고립($F=6.60, p<.01$), 건강($F=9.27, p<.001$), 전체($F=17.1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모역할 갈등에서 유능성($F=64.20, p<.001$), 애착($F=27.11, p<.001$), 침체성($F=8.68, p<.001$), 배우자 관계($F=15.11, p<.001$), 사회적 고립($F=21.63, p<.001$), 건강($F=22.79, p<.001$), 전체($F=52.7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지지에서는 유능성($F=22.18,$

<표 3> 부모의 양육신념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유능성		애착		억압성		침체성		배우자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양육신념	문제해결 능력	상	7.58	1.83	8.41	1.36	2.84	.94	3.73	.81	7.97	1.67	7.62	1.65	7.79	1.65	45.95	6.93
		중	7.30	1.41	7.84	1.22	3.08	.86	3.69	.73	7.60	1.27	7.15	1.39	7.60	1.48	44.28	5.45
		하	6.77	1.57	7.37	1.56	3.00	.81	3.50	.84	7.23	1.74	6.90	1.44	7.30	1.41	42.09	6.40
	F	8.59***		18.22***		2.29		3.32*		7.12**		7.76***		3.41*		12.57***		
양육신념	창의적 능력	상	7.90	1.70	8.50	1.45	2.90	.87	3.71	.91	8.01	1.55	7.67	1.59	7.78	1.64	46.50	6.57
		중	7.08	1.51	7.81	1.42	2.98	.90	3.66	.74	7.52	1.44	7.11	1.50	7.42	1.44	43.62	5.87
		하	6.95	1.68	7.55	1.59	3.00	.84	3.55	.83	7.44	1.81	7.08	1.47	7.59	1.55	43.19	6.91
	F	9.03***		10.70***		.33		1.15		3.26*		4.35*		1.52		7.04**		
양육신념	순응	상	7.57	1.77	8.16	1.47	2.98	.91	3.75	.82	7.72	1.60	7.64	1.60	7.71	1.59	45.56	6.94
		중	7.30	1.53	7.77	1.38	3.00	.91	3.74	.71	7.78	1.50	7.20	1.35	7.55	1.43	44.38	5.90
		하	6.94	1.61	7.74	1.47	2.95	.84	3.51	.83	7.40	1.66	7.00	1.54	7.47	1.54	43.04	6.46
	F	4.91**		2.73		.16		4.27*		2.34		5.46**		.70		4.92**		
양육신념	전체	상	7.49	1.87*	8.24	1.47	2.97	.95	3.75	.80	7.86	1.62	7.65	1.61	7.76	1.61	45.75	7.11
		중	7.37	1.36	7.87	1.17	2.96	.85	3.65	.73	7.67	1.26	7.09	1.31	7.53	1.44	44.16	5.07
		하	6.69	1.55	7.41	1.60	2.99	.81	3.48	.87	7.21	1.85	6.86	1.52	7.36	1.49	42.03	6.62
	F	9.06***		10.84***		.37		3.65*		5.56**		9.78***		11.18***		34.16***		

* $p<.05$ ** $p<.01$ *** $p<.001$

<표 4> 부모의 양육만족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유능성		애착		역압성		침체성		배우자 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일반적 만족도	상	7.76	1.70	8.33	1.38	2.94	.93	3.73	.81	7.97	1.65	7.55	1.66	7.87	1.65	46.11	6.67
	중	7.17	1.45	7.92	1.34	2.94	.88	3.64	.81	7.77	1.47	7.18	1.40	7.50	1.51	44.15	5.72
	하	6.67	1.60	7.32	1.47	3.03	.81	3.53	.79	7.09	1.60	6.90	1.43	7.29	1.35	41.87	6.40
	F	15.33***		16.98***		.48		1.90		9.85***		5.97**		4.76**		14.78***	
부모 자녀 관계	상	7.97	1.52	8.50	1.24	2.97	.95	3.82	.78	7.94	1.66	7.74	1.53	7.80	1.58	46.76	6.27
	중	7.36	1.48	7.95	1.26	2.97	.84	3.60	.79	7.63	1.54	7.27	1.44	7.61	1.47	44.36	5.96
	하	6.44	1.64	7.27	1.63	2.98	.87	3.55	.83	7.29	1.62	6.82	1.51	7.30	1.53	41.67	6.54
	F	27.10***		20.72***		.00		3.24*		4.36*		9.73***		2.97		17.62***	
배우자 지지	상	7.80	1.53	8.30	1.39	2.90	.85	3.71	.85	8.02	1.71	7.56	1.56	7.92	1.61	46.23	6.57
	중	7.42	1.45	7.88	1.39	3.04	.88	3.65	.76	7.64	1.50	7.26	1.47	7.68	1.43	44.59	6.15
	하	6.40	1.67	7.44	1.48	2.95	.88	3.55	.82	7.18	1.59	6.84	1.48	7.10	1.47	41.48	6.07
	F	25.33***		9.85***		.81		1.21		7.71**		6.60**		9.27***		17.11***	
부모 역할 갈등	상	6.13	1.52	7.24	1.51	2.82	.92	3.41	.83	7.04	1.60	6.57	1.59	6.91	1.42	40.16	5.39
	중	7.19	1.37	7.75	1.28	3.01	.81	3.63	.70	7.56	1.45	7.22	1.25	7.56	1.29	43.96	5.66
	하	8.16	1.40	8.49	1.30	3.05	.88	3.82	.83	8.11	1.62	7.76	1.49	8.13	1.58	47.55	6.17
	F	64.20***		27.11***		2.47		8.68***		15.11***		21.63***		22.79***		52.76***	
자녀의 지지	상	8.33	1.46	8.83	1.20	3.09	.95	3.92	.82	8.37	1.47	7.72	1.66	8.22	1.52	48.50	5.78
	중	7.25	1.54	7.88	1.32	2.89	.89	3.64	.78	7.65	1.43	7.24	1.46	7.45	1.54	44.03	5.92
	하	6.70	1.60	7.45	1.51	3.03	.81	3.50	.81	7.22	1.75	7.00	1.48	7.46	1.41	42.38	6.54
	F	22.18***		19.86***		1.49		5.54**		10.92***		4.67*		6.10**		19.67***	
전체	상	7.71	1.62	8.32	1.36	2.91	.96	3.69	.82	7.94	1.65	7.40	1.69	7.84	1.63	45.84	6.56
	중	7.12	1.51	7.73	1.33	2.98	.83	3.62	.75	7.52	1.43	7.12	1.39	7.46	1.34	43.57	5.65
	하	6.74	1.67	7.50	1.56	3.01	.84	3.59	.86	7.31	1.72	7.09	1.48	7.39	1.57	42.64	6.97
	F	11.15***		10.93***		.41		.56		4.82**		1.56		3.20*		8.06***	

* p<.05 ** p<.01 *** p<.001

p<.001), 애착(F=19.86, p<.001), 침체성(F=5.54, p<.01), 배우자 관계(F=10.92, p<.001), 사회적 고립(F=4.67, p<.05), 건강(F=6.10, p<.01), 전체(F=19.6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전체에서 유능성(F=11.15, p<.001), 애착(F=10.93, p<.001), 배우자 관계(F=4.82, p<.01), 건강(F=3.20, p<.05), 전체(F=8.0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신념을 포괄하는 부모들의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능력, 순응이 좋을수록 전반적으로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부모의 역할만족도를 대표하는 부모자녀 관계, 배우자 지지, 부모역할갈등, 자녀의 지지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언하는 변인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기 전에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살펴보니 r=.80이상인 것이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표 5 참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양육신념의 문제해결 능력(t=2.71, p<.01)과 부모역할 만족도의 부모역할갈등(t=-3.60, p<.001)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언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F(8, 388)=65.52, p<.001). 하위영역 중에서 부모역할갈등(t=-4.67, p<.001)은 유능성(F(8, 388)=50.49, p<.001)과, 문제해결 능력(t=2.71, p<.01)과 부모자녀 관계(t=2.50, p<.05)는 애착(F(8, 388)=45.90, p<.001)과, 부모역할갈등(t=-2.16, p<.05)은 배우자 지지

<표 5> 부모의 양육신념 및 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변인	하위영역	양육 스트레스						
		유능성	애착	억압성	침체성	배우자 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
양육신념	문제해결 능력	.573***	.632***	.338***	.513***	.558***	.582***	.557***
	창의적 능력	.552***	.591***	.295***	.487***	.526***	.525***	.467***
	순응	.502***	.490***	.305***	.434***	.440***	.527***	.473***
역할 만족도	일반적 만족도	.589***	.607***	.325***	.498***	.557***	.563***	.560***
	부모-자녀 관계	.635***	.662***	.350***	.517***	.547***	.579***	.556***
	배우자 지지	.599***	.542***	.268***	.440***	.522***	.486***	.519***
	부모역할 갈등	-.067	.090	.168***	.122*	.121*	.068	.122*
	자녀의 지지	.528***	.558***	.276***	.431***	.497***	.491***	.487***

* p<.05 ** p<.01 *** p<.001

(F(8, 388)=29.07, p<.001)와, 문제해결 능력(t=2.44, p<.05), 순응(t=2.96, p<.01), 부모역할 갈등(t=-2.96, p<.01)은 사회적 고립(F(8, 388)=33.58, p<.001)과 문제해결 능력(t=2.65, p<.01), 창의적 능력(t=-2.47, p<.01), 부모역할 갈등(t=-2.26, p<.05), 역할 만족도(t=1.98, p<.05)는 양육스트레스의 건강(F(8, 388)=30.91, p<.001)을 예언하는 변인이었다. 유능성의 경우는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이 51%이었으

며, 애착은 48%, 배우자 지지는 37%, 사회적 고립은 40%, 건강은 3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전체의 경우는 설명력이 5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언하는 변인들

독립 변인	하위영역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t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	.02	.08	.98	F(8, 388)=50.49*** R ² =.51
	창의적 능력	.02	.04	.57	
	순응	.04	.10	1.80	
	부모-자녀 관계	.06	.18	1.86	
	배우자 지지	.03	.10	1.20	
	부모역할 갈등	-.09	-.32	-4.67***	
	자녀의 지지	.01	.03	.54	
역할만족도	.02	.27	1.25		
애착	문제해결 능력	.05	.25	2.71**	F(8, 388)=45.90*** R ² =.48
	창의적 능력	.02	.04	.51	
	일반적 만족도	-.00	-.00	-.13	
	부모-자녀 관계	.08	.25	2.50*	
	배우자 지지	-.00	-.02	-.25	
	부모역할 갈등	-.05	-.17	-2.44*	
	자녀의 지지	.02	.06	.85	
역할만족도	.01	.20	.94		
억압성	문제해결 능력	.01	.09	.76	F(8, 388)=8.08*** R ² =.14
	창의적 능력	-.02	-.08	-.88	
	순응	.02	.08	1.15	
	부모-자녀 관계	.02	.14	1.10	
	배우자 지지	-.00	-.05	-.47	
	부모역할 갈등	.00	.00	.06	
	자녀의 지지	-.00	-.03	-.35	
역할만족도	.01	.23	.81		

* p<.05 ** p<.01 *** p<.001

<표 6> - 계속

독립 변인	하위영역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t	
칭체성	문제해결 능력	.01	.13	1.27	F(8, 388)=21.63*** R ² =.30
	창의적 능력	.02	.06	.75	
	순응	.01	.05	.85	
	부모-자녀 관계	.01	-.09	.77	
	배우자 지지	-.00	-.04	-.39	
	부모역할 갈등	-.02	-.13	-1.64	
	자녀의 지지	-.00	-.01	-.13	
	역할만족도	.01	.33	1.29	
배우자관계	문제해결 능력	.03	.15	1.50	F(8, 388)=29.07*** R ² =.37
	창의적 능력	.04	.06	.77	
	순응	.00	.01	.26	
	부모-자녀 관계	-.02	-.06	-.54	
	배우자 지지	.00	.02	.27	
	부모역할 갈등	-.05	-.17	-2.16*	
	자녀의 지지	.01	.03	.39	
	역할만족도	.03	.46	1.91	
사회적고립	문제해결 능력	.05	.24	2.44*	F(8, 388)=33.58*** R ² =.40
	창의적 능력	-.03	-.05	-.68	
	순응	.08	.18	2.96**	
	부모-자녀 관계	.02	.08	.76	
	배우자 지지	-.02	-.07	-.77	
	부모역할 갈등	-.06	-.22	-2.96**	
	자녀의 지지	.00	.02	.25	
	역할만족도	.02	.35	1.47	
건강	문제해결 능력	.06	.26	2.65**	F(8, 388)=30.91*** R ² =.38
	창의적 능력	-.12	-.20	-2.47*	
	순응	.05	.10	1.75	
	부모-자녀 관계	.00	.02	.17	
	배우자 지지	.00	.01	.10	
	부모역할 갈등	-.05	-.17	-2.26*	
	자녀의 지지	.00	.02	.25	
	역할만족도	.03	.48	1.98*	
전체	문제해결 능력	.25	.22	2.71**	F(8, 388)=65.52*** R ² =.57
	창의적 능력	-.07	-.02	-.35	
	순응	.21	.09	1.85	
	부모-자녀 관계	.20	.12	1.32	
	배우자 지지	.00	.00	.00	
	부모역할 갈등	-.33	-.23	-3.60***	
	자녀의 지지	.07	.03	.46	
	역할만족도	.16	.42	2.10*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신념 및 양육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3세에서 7세 자녀를 둔 부모 20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한 핵심적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역할만족도 중 배우자의 지지에 대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 양육의 역할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부모역할에 대한 갈등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에 따른 아버지상의 변화를 고려한 결과 이상적인 아버지상이 아버지로서의 가부장적인 권위만을 가지는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다정하고 친구같은 아

버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황정해, 2003). 그러나 실제 자녀양육과 역할수행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연구결과(한은주, 1998)에 의하면 젊은 아버지라 하더라도 의식면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역할수행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바쁜 생활로 말미암아 자녀를 돌볼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 원정선(1990)은 부모됨의 어려움과 만족에 대해 부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하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보다 강조된다는 점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유영주(1987)의 연구결과와는 본 연구결과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전문직 취업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로 자녀양육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영(1986)의 연구결과를 볼 때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양육이라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이며 이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중되어 자녀양육에 할애할 관심과 노력이 약화되고, 특히 전통적인 관점에서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의 소재가 어머니라는 것의 선입견이 부모역할 만족도가 낮아 자녀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부모의 양육신념이 긍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자녀에게 동기 부여자와 행동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발달하는 방향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신념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고 복잡한 구조 속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된다고 발표한 전경숙(1992)의 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신념이 클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며, 자녀의 역할 수행의 내용에 따라 부모의 역할만족도는 다양하게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동의 사회화 과정과 인격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신념과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 박성욱(1997)의 연구를 지지하며, 자녀양육에 부모의 신념이 자녀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는 부모들이 아동발달 전반에 대해 생각하는 신념이 자녀의 양육행동 자체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안지영, 2000; McGillicuddy-De Lisi, 1995; Mills & Rubin, 1990).

셋째,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모들은 사회생활에서 복잡

한 업무와 과로에 쉽게 노출되는데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중되어 자녀양육에 할애할 관심과 노력이 약화되기 쉽고,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가 무너져 자녀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Guidubaldi와 Clemminshaw(198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도 자녀양육에 따른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역할 만족도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보편적인 일상생활 만족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즉 자녀의 올바른 양육이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의 행복한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녀교육의 바람직한 패러다임 정립 차원에서 부모역할 만족도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부모의 양육신념 중 문제해결능력과 부모의 양육만족도 중 부모역할 갈등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 참여도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거론되었다. 특히 확대가족과 달리 핵가족의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어머니에게 물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박삼수(2004)와 허순금(2006)의 연구에서 남편이 가사일을 분담하고 아내의 직장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협조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지가 어머니의 역할 갈등을 감소시키며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 이슈라는 것을 강조한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어머니만의 책임이 아니라 가사분담을 함께 하여 남편이 가사 일에 협조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주로 어머니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어머니들 스스로가 주양육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어머니들 스스로가 기존의 고정적 여성관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자녀양육의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책임이 어머니만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버지의 역할은 단지 조력자로서의 책임만이 인지되고 있으므로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위하여 아버지 양육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이 대전

광역시의 일부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둘째, 주요한 설문항목인 부모의 양육신념과 양육 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응답자인 부모 자신이 설문지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의 문제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부모의 양육신념과 역할만족도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양육신념, 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참 고 문 헌

- 강희경 (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미 (1995)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가족 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혜 (1993) 자녀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지신, 도현심 (1997) 사회적 지지 및 부모 역할 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김지연 (2003) 취업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일 장신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은, 정옥분 (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역할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179-193.
- 박삼수 (2004)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안재연 (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학가정학회지, 30(3), 307-324.
- 박성연, 전춘애 (1996)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박성욱 (1997)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6(2), 37-45.
- 박영애, 정옥분 (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연구: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의 독립적 기여와 상호작용 효과. 아동학회지, 17(1), 189-212.
- 배인숙 (1993) 자폐아동의 적응행동 수준과 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영숙 (1985) 영유아의 양육책임자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의 영향. 아동학회지, 6(2), 1-20.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미경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원정선 (1990)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1987) 신가족 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영 (1986) 취업모와 자녀문제 /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양육 실태 - 전문직 기혼여성의 취업실태와 자녀양육현장. 한국아동학회, 7(1), 1-23.
- 전경숙 (1992)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2), 251-272.
- 조복희, 현온강 (1993)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은주 (1998)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황정해 (2003)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남성의 부성 경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순금 (2006)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 요인 분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온강 (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 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0a) Abidin, R. R. (1990a)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wen, G. L. (1982) Social Network and Maternal Role Satisfaction of Formerly-Married Mothers. *Journal of Divorce*, 5(4), 77-85.
- Crnic, K. A.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Goetting, A. (1986) Parental satisfaction- A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Family Issues*, 7(1), 83-109.
- Goodnow, J. (1988) Parent's ideas, action,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Kovchanska, G., Kuczynski, L. & Radkr-Yarrow, M. (1989) Correspondence between mothers' self-reported and observed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0, 56-63.
- McGillicuddy-De Lisa, A. V. (199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Hillsdale(NJ), Lawrence Erlbaum-Associates.
- Miller, S. A. (199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Mills, R. & Rubin, K. H. (1990)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Sigel, I. 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Hillsdale(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ffensmeier, R. (1982) A role model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319-334.

(2007. 7. 31 접수; 2007. 10. 15 채택)